



프랑스 대선에서 15명에 가까운 후보들이 출사표를 던졌지만 우파인 사르코지 대통령과 좌파 사회당의 프랑수아 올랑드 후보 간 양자 대결로 좁혀지고 있다. EPA\_ 연합뉴스

## 막 오른 프랑스 대선

사르코지 재선 성공할까?  
재정 위기 반발이 정권 심판론으로

**프**랑스도 바야흐로 선거철이다. 우리나라처럼 올해 총선과 대선을 한꺼번에 치른다. 다른 점이라면 대선을 먼저 치른다는 것과 두 선거의 간격이 2개월이 채 안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4월22일 1차 투표가 실시되는 대선의 위력이 워낙 커서 총선은 관심권 밖으로 밀려난 모양새다.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의 2월15일 공식 출마 선언으로 프랑스가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 접어들었다. 15명에 가까운 후보가 출사표를 냈지만 우파인 사르코지 대통령과 좌파인

프랑수아 올랑드 사회당 후보의 양자 대결로 좁혀지고 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출마 선언 며칠 전 우파 성향 주간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번 대선에서 '직업, 책임, 권한'에 관한 복지와 금융거래세 도입을 비롯한 경제의 개혁과 함께 동성 결혼과 안락사 반대 등 우파적 가치를 쟁점화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번 프랑스 대선은 유럽의 선거라고도 할 수 있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채무·재정 위기로 프랑스, 이탈리



제작년 정년연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연금개혁 입법을 추진하다 하락한 지지율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사르코지 대통령은 지난 1월 말 금융거래세 도입과 부가가치세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각종 경제개혁안을 발표했지만 혜택은 대부분 올랑드가 차지하는 등 사실상 '백약이 무효'인 상태다. AFP\_연합뉴스

차지한 형국이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백약이 무효'라는 얘기가 딱 들어맞는다. 최근 클로드 게양 내무장관이 “모든 문명이 동등한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슬람 세력을 겨냥한 극우적 발언으로 좌파의 강력한 반발을 산 데 이어 사르코지 대통령이 국민투표를 만지작거리는 것도 이런 비상상태의 연장 선상에서 나온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지난해 치러진 유럽 각국 선거는 재정 위기의 탓으로 모두 정권이 바뀐 게 특징이다. 경제 위기를 극복하려면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고, 그 긴축정책에 대한 반발이 정권 심판론으로 이어진 것이다. 따라서 올해 프랑스 대선은 관전 포인트도 이런 배경에서 과연 사르코지 대통령이 크게 뒤져 있는 지지율을 따라잡고 재선에 성공할 수 있느냐의 여부로 압축된다.

# France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이 2월15일 공식 출마를 선언하면서 프랑스 대선의 본격적인 막이 올랐다. 이번 선거는 유럽의 선거라고 할 수 있다. 유로존의 재정 위기 속에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주요 국가들의 국가 신용등급이 줄줄이 강등당한 가운데 올해 처음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이다.

아, 스페인 등 유럽 주요 국가의 국가신용등급이 줄줄이 강등당한 가운데 올해 유럽에서 처음으로 치러지는 큰 선거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유럽은 요즈음 이웃 나라의 상황에 따라 자기 나라 경제가 달라진다는 이유로 이웃 국가에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도 용인되는 분위기다. 유럽의 기관차인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유럽 경제 위기를 살리려고 함께 동분서주하는 같은 우파 진영의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을 대놓고 지원하는 모습도 이런 시대적 상황의 작품인 셈이다.

제작년 정년 연장을 위한 연금개혁 입법을 추진하다 추락한 지지율을 아직도 회복하지 못한 사르코지 대통령은 올 1월 말 금융거래세 도입과 부가가치세 인상 등을 포함한 경제개혁안을 발표했으나 정작 그 혜택은 올랑드 후보가 대부분

## 프랑스 대통령 어떻게 뽑나?

프랑스가 대통령을 선출하는 방식은 우리나라와 많이 다르다. 모든 후보를 놓고 1차 투표를 치러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2주일 뒤에 상위 득표자 1, 2위에 대한 결선투표로 대통령을 뽑는다. 엄밀히 말하면 이런 선거 방식은 프랑스뿐만 아니라 유럽 국가 대부분이 대선과 총선에서 채택하고 있다.

올해 프랑스 대선 1차 투표는 우리나라 총선 열흘 뒤인 4월22일 실시된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5월6일 결선투표를 통해 대통령을 뽑는다.

## 누가 출마하나?

프랑스 정가에서는 15명 안팎의 후보가 대거 출마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집권 여당인 대중운동연합(UMP)에서는 사르코지 대통령의 후보 지명이 확실시된다. 제1야당인 사회당



지지율에서 사르코지 대통령을 앞서고 있는 프랑수아 올랑드 사회당 대선 후보는 유세 연설을 통해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금융거래세 도입과 부가가치세 인상 등 사르코지 대통령의 주요 경제정책들을 무산시키겠다고 밝혔다. AP\_ 연합뉴스

은 작년 10월 일찌감치 올랑드 전 당수를 대통령 후보로 지명한 데 이어 각종 공약을 내걸고 세몰이에 나섰다. 극우 정당인 국민전선(FN)의 마린 르펜 후보와 중도 정당인 민주운동의 프랑수아 바이루 후보도 출마 의사를 밝히고 전국을 누비며 유세에 나섰다.

우파 진영에서는 사르코지 대통령, 르펜 후보, 바이루 후보 외에 공화국연합(RPR)의 도미니크 드 빌팽, 신중도당의 에르베 모랭, 사냥냥시자연전통당(CPNT)의 프레데릭 니우스, 공화국세우기(DLR)의 니콜라 뒤퐁-애냥 등의 출마가 예상된다. 좌파로는 올랑드 후보에 이어 좌파전선의 장-뤽 멜랑송, 녹색당의 에바 줄리, 환경당의 코린 르파주, 노동자 투쟁당의 나탈리 아르토, 극좌파 반(反)자본주의 신당(NPA)의 필립 푸투 등이 거론되고 있다.

공화시민운동(MRC)의 장-피에르 슈벤망 상원의원은 올해에도 대권 도전에 나섰으나 2월1일 “유세를 계속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전격 사퇴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2002년 대선에서 사회당 후보를 낙마시키고 우파 대통령을 어부지리로 당선시키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는 이유로 좌파의 따가운 눈총을 받았었다. 우파인 기독교민주당의 크리스틴 부탱 후보도 2월14일 불출마를 선언하며 사르코지 지지를 선언했다.

## 현재 판세는? 2강 2중 10弱

지금까지는 올랑드 후보가 여유 있게 앞서 가는 판세다.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1차 투표에서 올랑드 후보가 30~34%의 지지율로 24~26%에 머물 사르코지 대통령에 6~8% 포인트 앞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르펜 후보가 20% 안팎으로 3위, 바이루 후보가 10~14%로 선두권을 뒤쫓는 양상이다. 이런 추세라면 올랑드 후보와 사르코지 대통령의 결선투표 진출이 틀림없어 보인다. 결선투표 예상에서는 한때 사르코지 대통령이 46% 대 54%까지 격차를 좁히기도 했으나 이후 다시 벌어져 현재 최대 20% 포인트까지 확대됐다.

르펜 후보는 예상외의 복병을 만났다. 아버지처럼 자칫 후보 등록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국민전선을 창당한 아버지(장-마리 르펜)에게서 지난해 대표직을 넘겨받은 이후 극우파답지 않은 공약과 연설로 20% 안팎의 지지를 확보한 르펜은 3만8천 명에 이르는 선출직 공무원 가운데 후보 등록에 필요한 500명의 지지 서명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르펜 후보는 집권당과 사회당이 선출직들에게 압력을 넣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익명으로도 대선 후보를 지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제소한 상태다. 그의 아버지도 1981년 대선에서 선출직 서명을 434명밖에 확보하지 못해 주저앉아야 했던 쓰라린 경험을 안고 있다.

## ‘약체’ 사르코지의 전략은?

사르코지 대통령은 ‘선거의 귀재’로 통한다. 선거 때마다 승승장구한 그의 전력을 빗대어 하는 말이다. 하지만 그런 사르코지 대통령도 지난 1월 말 대선 패배 가능성을 언급해 여권에 낭패감을 안겼다. 비록 ‘비보도’를 전제로 했지만 당시 그는 “어쨌든 끝이 가까워 오고 있다”고 전제하고 “대선에서 패배하면 정계에서 완전히 은퇴해 전혀 다른 생활을 영위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과 집권당 프리미엄을 활용한 각종 정책이 전혀 먹혀들지 않는 데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개최, 리비아 사태 해결 주도 등의 업적에 대한 평가는 커녕 부인 카를라 브루니 여사의 임신과 딸 줄리아 출산까지도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한 좌절감에서 비롯된 발언으로

풀이된다. 물론 사르코지 진영에서는 자신감의 표현이며 우파 유권자들의 결집을 노린 고도의 정치적 전략이라고 일부 무리기는 했지만 여권에 상당한 충격을 준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제 사르코지 진영은 이제 '모 아니면 도' 식의 밀어붙이기 전략만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다. 작년 중반만 해도 시간이 흐르면 낮은 지지율을 충분히 회복할 수 있다는 계산이 있었으나 모든 주요 정책과 현안에서 올랑드 후보에게 뒤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웬만한 공약으로는 한 번 등 돌린 민심을 되돌릴 수 없으리라는 판단에서다.

심지어 사르코지 대통령의 주요 업적이라고 할 수 있는 범법자와 이민 분야에서도 올랑드 후보가 더 신뢰할 만하다는 여론조사가 나왔을 정도다. 터키와의 외교관계 단절을 무릅쓰고 50만 명에 달하는 아르메니아계 유권자들을 겨냥해 1915년 아르메니아 학살 사건 관련법 제정을 강행하고, 우파 성향의 아시아계 표심을 유인하기 위해 올해 3년째인 '설날 리셉션'에 예년보다 많은 아시아계 프랑스 국적자들을 초청한 것들이 '모 아니면 도' 전략의 단편들이다.

사르코지 진영은 2007년 대선 공약 작성을 주도했던 에마누엘 미농 전 엘리제궁 기획실장을 전격 불러들여 반전을 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농 전 실장은 집권 초 대통령 비서실장(계양 현 내무장관)과 갈등을 빚다가 엘리제궁을 떠났으나 사르코지 대통령과 독대를 가진 후 복귀를 결정했다는 후문이다.

사르코지 대통령이 국민투표를 만지작거리는 것도 우파 유권자들의 의식을 자극한다는 점에서 회심의 카드라 할 수 있다. 사르코지 대통령이 머잖아 실업 문제와 외국인 추방 결정 주체에 대한 국민투표를 제의하리라는 게 프랑스 언론의 전언이다.

## 메르켈 지원이 사르코지에 득인가?

최근 사르코지 대통령은 앙숙이기도 한 이웃 독일에서 커다란 선물 보따리를 받았다. 메르켈 총리가 프랑스를 방문한 자리에서 사르코지 대통령 지지 입장을 천명한 것이다. 메르켈 총리는 지난 2월 초 프랑스 2 TV와 독일 ZDF TV로 생중계된 회견에서 "친구 정당을 지원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라고 말하고 "모든 측면에서 사르코지 대통령

을 지지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지난 2009년 독일 총선에서 자신을 지원했던 사르코지 대통령에게 '보은'을 자처하고 나선 것이다. 사실 두 정상은 '메르코지'라는 합성어가 말해 주듯이 떼어 놓을 수 없는 관계가 됐다. 독일로서는 유럽연합(EU) 내 위기 관리를 비판 받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프랑스의 지원이 절실하고, 프랑스로서도 경제적으로 완전히 추월당한 독일의 지도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 열기 식히고 '낮은 자세' 취하는 올랑드

올랑드 후보는 대통령 후보직이 '떼어 놓은 대상'과도 같았던 도미니크 스트로스 칸 전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의 성 추문 연루에 이은 대권 경쟁 낙마로 어부지리를 얻었음을 굳이 부인하지 않는다. 사르코지 대통령조차 올랑드 후보를 과소평가했다는 얘기가 나돌 정도다. 올랑드 후보는 그러나 사르코지 대통령과의 지지율 격차가 크게 벌어지자 입가에 번지는 웃음을 애써 감추고 있다. '별써 대통령에 당선된 것처럼 거드름을 피운다'는 소리까지 듣는 올랑드 진영으로서는 냉정한 자세가 최선의 방책임을 잘 알고 있다.

올랑드 진영은 모든 정책과 현안에서 앞서고 있는 점을 감안해 사르코지 대통령이 들고 나오는 주장마다 '이미 다 써먹은 카드' '효과 없는 카드' 등으로 의미를 깎아내리고 있다. 특히 여당의 실수에 대해서는 가차 없다. 올랑드 후보는 사르코지 대통령이 1월 말에 발표한 금융거래세 도입안과 부가세 인상안에 대해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폐기될 안건이라고 쓰아붙였다.

그는 부가세 인상안과 관련해 "시기적으로 부적절하고 부당하며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즉흥적"이라며 반대 이유를 조목조목 제시했다. 사르코지 대통령의 국민투표 제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집권 내내 사회적 약자들을 가장 많이 문제 삼고 분열시켜 온 장본인이 무슨 국민투표냐?"고 반문하고 "가장 빨리 실시되는 국민투표는 바로 대선"이라고 일축했다.

사르코지 대통령이 어떤 메가톤급 이슈를 만들어 냉정한 유권자들의 마음을 되돌릴 것인지가 자못 주목되는 프랑스 대선 국면이다. 

김흥태 파리 특파원 hongtae@yna.co.kr